

지구촌 양계뉴스



미국

닭 날개 가슴살 대체 수요 몰려 도매가 '경중'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오말리 스포츠 바는 풋볼 시즌인 가을철에 진행하는 닭 날개 특별 할인 메뉴를 올해는 없애 버렸다.

풋볼 경기가 있는 월요일 밤마다 닭 날개 10여 개를 4달러에 파는 일종의 박리다매 마케팅인데 올해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에선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닭 날개 요리인 버팔로윙을 먹으면서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풋볼 팬들이 많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시의 한 레스토랑은 24센트짜리 닭 날개 메뉴를 팔지 않기로 했다.

초유의 불황에 음식점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안을 주인들이 나서서 없애는 것은 왜일까.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월 13일 닭 날개 가격이 날개 돋친 듯 오르면서 최고급 부위인 가슴살 가격을 추월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전했다.

지난 11개월 중 7개월 동안 미국에서 닭 날개 가격은 가슴살 가격을 뛰어넘어 지난달 미국 북동부 지역의 닭 날개 평균 도매가격이 파운드 당 1.48달러로 닭 가슴살(1.21달

리)보다 높았다는 것. 지방이 덜 함유된 닭 가슴살은 원래 닭의 부위 중 가장 비싼 프리미엄 부위다. 1년 전 가슴살 가격은 날개보다 파운드 당 21센트, 지난해 5월에는 57센트 더 비쌌다.

불황이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는 것인데,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외식을 즐기면서 레스토랑의 가슴살 주문이 줄었고 그 결과 도매가격이 내려갔다고 NYT는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가슴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날개를 먹기 시작하면서 날개 값은 비상한 셈이다.

그러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보다 비탄력적이어서 레스토랑 주인들이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해당 메뉴의 판매를 꺼리거나 할인 행사를 취소하는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가슴살의 가격이 날개를 다시 추월해 닭고기 지존 부위의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풋볼 시즌에 닭 날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닭 날개의 비상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닭 날개 요리 체인인 '윙존'의 창립자인 애덤 스콧은 "날개가 4개 달린 닭 사육법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인 가격 강세를 전망했다.

- 뉴욕 aT 센터/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한국식 양념닭 레시피 소개

미국 뉴욕타임즈가 지난 9월 한국 영부인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식사대접과 함께 떡볶이를 소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바삭하면서 매콤한 한국식 양념닭에 대한 레시피를 'Quick and Easy Korean Cooking'의 저자인 한국계 미국인인 이 세실리아 혜진씨의 요리레시피를 인용해 소개했다.

뉴욕타임즈 기자는 기존의 미국 남부식 후라이드 치킨이 아닌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마다 특색있는 맛을 소개, 뉴욕일원의 어디서 즐길 수 있는지 업체명과 주소를 함께 명시했다.

여기에는 한인촌에 위치한 교촌치킨과 한국계 스타쉐프인 데이빗장이 운영하는 모모푸쿠 누들바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에서 튀김닭은 한국전 이후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오픈하면서 대중화가 되었으며 가족들끼리 모여 술과 함께 즐기는 안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이세실리아의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식 양념닭은 미국식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과는 달리 튀김옷이 덜 입혀졌으나 한국 고추장양념과 달콤한 소스를 입혀 바삭함과 매콤달콤한 맛이 어울려 뉴욕플러싱에 교촌치킨 외에 얼마전 모모푸쿠 누들바에서도 지난 여름부터 판매를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 뉴욕 aT센터/뉴욕타임즈

연방의회, 중국산 닭고기 수입 재허용 추진

미국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던 연방의회가 지난 9월 25일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로사 델라우로 하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상하원 협상 대표들이 수입 재허용에 합의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되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의 안전검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원 농업 세출소위원회의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델라우로 의원은 그동안 식품안전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국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이후 수개월간 계속된 미·중간 닭고기 무역마찰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LA aT 센터



중국

미국과 닭고기 무역 정상화 기대

중국과 미국간 닭고기 무역이 조만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희망적인 기대가 나왔다.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지난 10월 23일 상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에 대한 차별적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개선한 조례를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야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내년에 적용될 새로운 조례에는 여전히 중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산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미국이 양국간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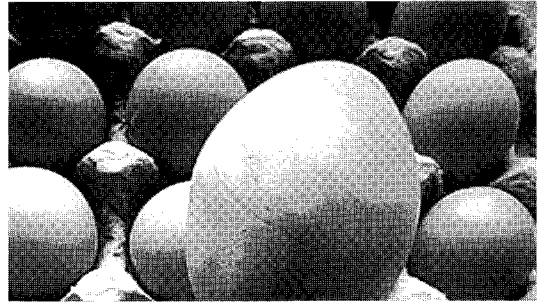
미국은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차원에서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며 중국은 이에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타이어 덤핑 조치에 나서자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산 수입 닭고기 반덤핑 조사를 들어갔다.

- 아시아경제

보통 달걀보다 3배 큰 '슈퍼달걀' 화제



중국의 한 양계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탉이 보통 달걀보다 3배나 큰 '슈퍼달걀'을 낳아 화제가 되고 있다.

장시(江西)성 우위안현 쑤양진의 한 양계장에서 탄생한 '슈퍼달걀'의 무게는 보통 달걀(50g)의 3배에 달하는 157g이며, 길이는 가로, 세로 각각 9cm, 6cm이다.

양계장 주인 리(李) 씨는 “2만마리나 되는 닭들이 매일 수천개의 알을 낳는데 이번 처럼 큰 달걀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슈퍼달걀을 낳은 닭은 무게 2kg의 평범한 닭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산둥성에서는 보통 집닭이 무게 182g에 달하는 거대한 달걀을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온바오닷컴(www.onbao.com)

쿠바

식량배급표, 반세기만에 폐지될까

쿠바에서 식량 배급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영 언론에 의해 제기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이 정부 보조로 매달 기본적인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이 배급표는 쿠바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온 요소 중의 하나다.

쿠바 국민은 이 배급표로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쌀과 콩, 약간의 닭고기 같은 기본 식품을 구할 수 있었다.

배급표 제도는 쿠바 혁명 후 미국이 쿠바와의 교역 관계를 단절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1962년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 비틀거리는 경제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국영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의 편집인 라사로 바레도 메디나는 지난 10월 9일 한 면 전체를 차지한 기명 논설을 통해 “배급표가 한 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취해야 할 집단 결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하루아침에 배급표 폐지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레도의 이 글이 즉각 정책과 같은 무게를 지닐 수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솔직하고 긴 그라마 편집인

의 논설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정부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은 지난해 2월형 피델 카스트로를 승계한 후 몇 차례나 배급표가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반면 제공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쿠바의 체제가 국민에게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민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아바나 AP=연합뉴스

캐나다

CFIA, 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기준 설정

CFIA(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내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동물 위생을 위하여 가금육 생산자를 위한 국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고 지난 10월 6일 발표했다.

농장에서의 방역 표준은 질병의 예방과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biosec/aviafrme.shtml>에 게재되어 있다.